돌아온 최원준, KIA에 새 바람 일으키나

최원준

1루수 2번타자로 선발 복귀
내·외야 뜨거워진 경쟁
아시안게임 외야수로 국대 선발
팀 체질 변화 이끌지 주목

KIA 타이거즈 최원준이 '예비역'으로 돌아왔다. 내·외야 경쟁은 더 뜨거워진다.

KIA는 13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 앞서 엔트리 변화를 줬다. 전날 내야수 홍종표를 말소한 KIA는 대신 최원준을 등록했다.

그리고 최원준은 등록과 함께 2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하면서 팬들 앞에서 전역 신고를 했다.

최원준의 등장으로 그라운드에 새바람이 불 전망이다.

'호타준족'의 최원준은 KIA가 2016년 KIA 2차 1라운드로 낙점한 선수다.

KIA는 잠재력을 가진 '원석'을 다듬기 위해 공을 들였다. 2017년 다이너마이트 타선으로 우승을 이룬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외야를 가리지 않고 전폭적인 기회를 주었고, 최원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123경기에 나와 0.326의 타율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143경기를 소화하면서 0.295의 타율을 찍기도 했다. 이해 강견 우익수로 활약하면서 1244이닝이라는 KBO 단일 시즌 최다 수비 이닝 기록도 작성했다.

2021시즌이 끝난 뒤 상무로 떠났던 최원준은 국방의 의무를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팀에 복귀했다. KIA는 시즌 중반 합류하게 되는 최원준을 위해 '16번'을 비워뒀고, 최원준은 익숙한 번호를 달고 다시 팬들 앞에 섰다.

연패와 연승을 거듭하는 등 기복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KIA는 최원준을 통해 '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야에 눈길이 쏠린다.

최원준은 이날 1루수로 나서기는 했지만 외야가 본 무대이다. 최근 발표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최원준은 최지훈(SSG), 이정후(키움)와 함께 외야수로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KIA 외야에는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전인 나성범이 부상으로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뜨거워진 기온에 맞춰 뜨거운 방망이를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우성이 공·수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외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통산 타율 3할에 빛나는 고종욱도 좋은 타격으로 KIA로 이적했던 지난해보다 이미 더 많은 타석을 소화했다. 초반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던 이창진도 집중력 있는 수비까지 더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령은 KBO리그에서도 손 꼽는 수비 실력을 가진 외야수다.

나성범이 다음 주 퓨처스 선수단 합류를 기다리는 등 6월 말 복귀가 예고된 만큼 외야는 전쟁터가 됐다.

1루도 새로운 격전지다. 최원준은 KIA에서 1루수로 45경기를 소화했었고 상무에서도 1루에 서기도 하는 등 멀티플레이어로의 활약을 준비했다.

지난해 1루를 지켰던 황대인이 올 시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으로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고 있고, 김석환과 변우혁도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기대주'인 만큼 검증된 최원준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KIA는 타선의 힘과 스피드를 동시에 더할 수 있다.

최원준이 빨리 1군 무대에 적응을 끝내고 제 몫을 해주는 게 KIA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 하지만 경쟁이라는 관문이 있다.

김종국 감독은 전역과 함께 최원준을 선발 라인업에 올렸지만 앞서 "전역해도 무조건 주전은 아니다"라며 경쟁을 언급했었다. 진정한 팀 체질 변화를 위해 최원준은 실력으로 보여줘야 하고, 김종국 감독은 자신의 발언을 지켜야 한다.

돌아온 최원준이 기복 많은 KIA에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2루수 김하성
MLB 올스타 팬 1차 투표서 '톱10'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2루수 김하성(27·사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2023 올스타 팬 투표 1차 집계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포지션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김하성은 13일 MLB 사무국이 발표한 투표 중간 집계에서 8만2879표를 받아 내셔널리그(NL) 2루수 부문 9위에 올랐다.

1위는 50만9092표를 얻은 루이스 아라에스(마이애미 말린스)가 차지했고, 오지 올비스(애틀랜타 브레이브스·37만6726표), 놀런 고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24만5524표)이 뒤를 이었다.

김하성은 올 시즌 61경기에서 타율 0.241, 5홈런, 11도루의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안정적인 수비로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하성의 활약상을 고려하면 올스타 1차 집계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

김하성이 올스타전에 나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감독 추천 등의 방법으로도 별들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

역대 MLB 올스타전에 출전한 한국인 선수는 총 4명이다.

2001년 박찬호를 시작으로 김병현(2002년), 추신수(2018년), 류현진(2019년)이 올스타전에 나섰다.

올해 중간 집계에서 전 포지션을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선수는 NL 외야수 부문 1위인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애틀랜타·108만6537표)다.

AL 1위는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로 지명타자 부문에서 92만4182표를 끌어모았다.

뉴욕 양키스의 강타자 에런 저지는 84만4965표로 AL 외야수 부문 1위에 올랐다. 올스타 팬 투표 각 부문 최종 1위 선수는 다음 달 12일 오전 9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리는 2023 올스타전 선발 선수로 나선다.

/연합뉴스

이강인 행선지 메시 떠난 PSG?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영입 제의
1군·챔스리그 출전 보장 약속

이강인

지난 시즌 물오른 경기력을 펼쳐 보인 이강인(마요르카) 영입전에 프랑스 프로축구 '거함' 파리 생제르맹(PSG)도 뛰어들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최근 몇 주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들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가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이강인 영입 제의를 한 팀이 PSG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마르카 보도에 따르면 PSG에서 선수 영입을 담당하는 루이스 캄포스 스포츠 디렉터가 마요르카 측과 몇 주 동안 협상을 벌여왔다.

이강인 측에는 PSG 1군에서 뛰는 것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마르카는 "(마요르카에 대한) 캄포스 디렉터의 설득 작업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초호화 공격진이 올여름 와해할 분위기인 PSG가 '새 판 짜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강인의 파리 입성 가능성은 절대 작지 않아 보인다.

이미 리오넬 메시의 미국프로축구(MLS) 인터 마이애미행이 사실상 확정됐고, 킬리안 음바페는 PSG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심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행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네이마르 역시 거액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떠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이강인은 2022-2023시즌 라리가 36경기에 나서 6골 6도움을 올리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비록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라리가 사무국으로부터 '올해의 미드필더'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영입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EPL 구단으로 이강인이 이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영국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버밍엄 메일'은 이날 보도에서 "애스턴 빌라가 이강인 영입에 가장 유력한 구단으로 떠올랐다"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영입전 패배를 인정했다. 이강인이 마드리드로 갈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스포츠 탈장' 수술 받아
16일 페루와 평가전 출전 불투명

2주 전 수술 회복 훈련에 집중

13일 오전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가벼운 증세의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 훈련에 들어가면서 페루와 평가전(16일 오후 8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3일 "손흥민이 지난달 29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마친 뒤 현지에서 가벼운 스포츠 탈장 증세로 수술받고 귀국했다"라며 "수술을 받은 지 2주 정도 돼 회복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 A매치 2연전 출전은 지켜봐야 한다. 감독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손흥민은 경기 출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 전날부터 회복에 주력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탈장은 내장을 지지하는 근육층인 복벽이 약해지거나 구멍이 생기면 압력에 의해 내장이 복벽 밖으로 밀려 나오는 증세다.

특히 서혜부의 얇은 근육이나 인대가 뒤틀리거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찢어질 때 주로 발생한다.

손흥민은 12일 대표팀 소집 첫날 훈련에 이어 이날 치러진 이틀째 훈련에도 정상적으로 합류해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다.

손흥민의 증세는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회복 상태를 지켜본 뒤 페루전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